

헤어드라이어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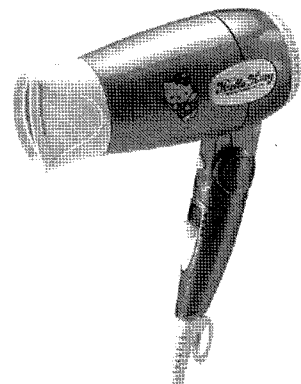
자료제공 : (주)조아스전자

최근 국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헤어 드라이어가 기능도 다양하고 인간 뿐만 아니라 애견용 등 사용 용도가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과거에는 단순히 머리를 건조하는 목적에서 현대에는 헤어 스타일의 변형 모발의 보호기능을 추가한 헤어 드라이어의 출시 등으로 개개인의 헤어 스타일의 창조 및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헤어드라이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모발(毛髮)의 해부

사람의 털의 총칭, 머리에 난 털을 두발(頭髮), 남자의 입가, 턱, 뺨에 난 털을 수염(鬚髯), 눈썹(眉毛), 속눈썹(睫毛), 코털(鼻毛), 귀털(耳毛), 음모(陰毛), 체모(體毛) 등으로 불려 구별한다.

성선(性善)의 영향을 받는 털은 성모(性毛)라 하며, 거드랑이털, 음모, 수염이 이에 해당한다. 거의 전신에 분포하나, 입술,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과 발가락 안쪽, 귀두(龜頭), 포피(包皮)안쪽과 음핵(陰核)에는 없다.



그수는 전신에 약 500만 본, 두부에 약 10만 본이다. 털은 중심으로 부터 모수질(毛髓質), 모피질(毛皮質), 모소피(毛小皮)의 3층으로 이루어지며, 모수(毛髓)의 유무, 멜라닌 색소의 유무에 따라 취모, 연모(軟毛), 경모(硬毛)이며, 경모는 다시 장모(長毛)와 단모(短毛)로 나누어진다. 취모는 태생기(胎生期)의 털로 생후 얼마 안되어 없어진다. 연모는 멜라닌색소는 있으나 모수가 없고, 피부의 넓은 부분에 분포한다. 경모는 멜라닌색소와 모수가 다 있고, 머리, 겨드랑이, 외음부 등 한정된 부분에 분포하고 장모는 두발 등 길게 자라는 털이며, 단모는 눈썹, 속눈썹 등의 짧은 상태로 신장이 정지된 털을 가리킨다.



성상(性狀)에 따라 직모(直毛), 파상모(波狀毛), 축모(縮毛)로 색조로는 흑모(黑毛), 갈색모(褐色毛), 금발(金髮), 적모(赤毛), 백모(白毛) 등으로 구별한다. 두발의 성장속도는 하루에 0.3~0.4mm인데, 연령, 성별, 부위, 계절, 주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성상(性狀)에 따라 직모(直毛), 파상모(波狀毛), 축모(縮毛)로 색조로는 흑모(黑毛), 갈색모(褐色毛), 금발(金髮), 적모(赤毛), 백모(白毛) 등으로 구별한다. 두발의 성장속도는 하루에 0.3~0.4mm인데, 연령, 성별, 부위, 계절, 주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모발의 수명

사람의 모발은 메리노종의 양과 같이 일생 똑같은 털이 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 하면 자연스럽게 빠져버리고(두발은 하루에 약 70~80본의 자연 탈모가 있음), 얼마 지나면 새털이 난다. 이것을 털의 수명 또는 모주기(毛周期)라고 하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이루어진다. 그기간은 신체의 부위나 연령에 따라 다르나, 성장기가 긴 것일수록 털이 길게 성장한다. 두발은 85%가 성장기에 있고, 5~7년간 계속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중에는 25년에 이르는 것도 있어서 2m를 넘는 사람이 있다. 퇴행기의 털은 2%로 2~3주간이 지나면 휴지기로 들어가 탈락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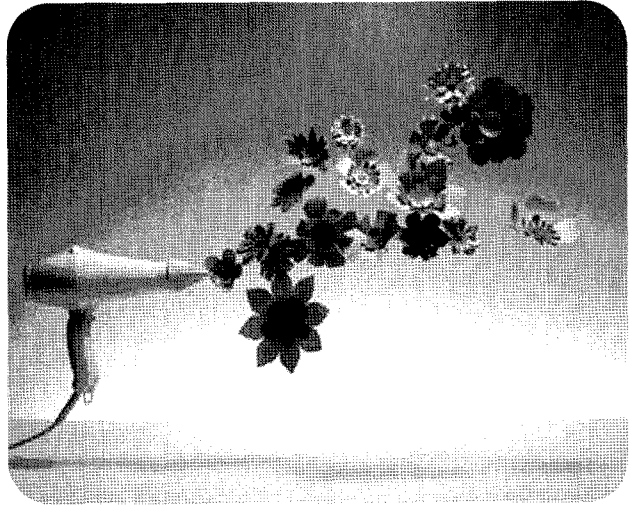
사람은 각각의 털 조직이 독립적인 모주기를 영위하고 있으므로(모자이크 패턴), 쥐나 토끼 등 일제적주기(一齊周期)를 갖고 있는 동물처럼 털갈이 현상이 없다.

3. 모발의 조성

모발은 경(硬)케라틴이라고 불리는 황(黃)을 포함하는 섬유성(纖維性) 단백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이것은 폴리펩티드사슬이 장축(長軸)방향으로 나란히 서서 곁사슬에 의하여 서로 결합한 것이다.

장축방향으로는 매우 강인하여 모발 한 가닥으로 약 100g의 물건을 달아 댈 수 있다. 결사슬은 잘리기 쉬우며, 모발이 세로로 갈라지기 쉬운 것은 이 까닭으로, 손질을 잘못하면 지모(枝毛)가 생기기 쉽다. 또 수분을 잘 흡수하고(건조중량의 35%), 장축방향으로 1~4%, 횡축방향으로 14% 늘어난다.

수분을 머금은 털은 탄력성도 증가하여 건조(乾燥)모(毛)의 1.5~1.75배의 길이로 늘어나며, 늘였다 놓으면 건조모보다 빨리 원상태로 돌아간다.



4. 헤어드라이어(Hairdryer) 이야기

□ 기능

두발은 빨리 건조시키고 헤어 스타일을 완성 시킨다. 또 피부의 지각 신경을 자극해 혈액 순환을 돕고 피지 분비량을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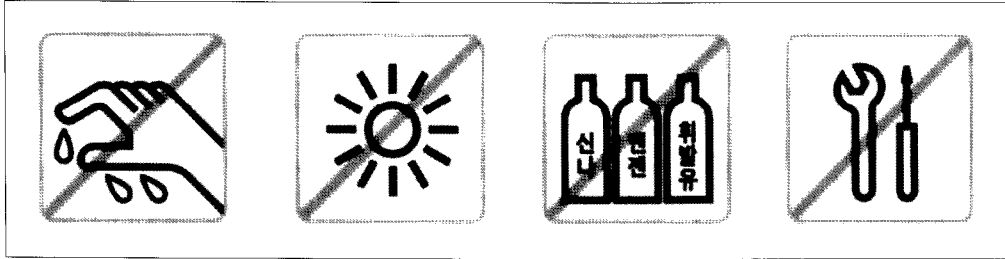
□ 종류

- 핸드식: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어로 바람을 일으켜 보내는 블로우 타입이 있다.
- 스탠드식: 고정시켜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어로 블로우 타입이 있다.
 - 블로우 타입: 소음이 적고 두발이 날리지 않으며 바람이 방산됨(건조속도다소느림)
 - 후드 타입: 터비네이트 타입(바람선회)으로 건조 효과가 뛰어나며 기타 적외선의 열을 이용한 드라이어, 건조한 공기의 선회순을 이용한 에어 드라이어도 있다.

□ 시장동향

- 최초 시장에 출시되는 헤어 드라이어를 보면 제조회사들도 많고 기능도 다양하게 많은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 헤어 드라이어의 사용목적적인 두발 건조 기능은 대동소이하고 제조 회사별로 건강한 모발 유지 기능 및 소비자의 사용 편리기능을 추가하는 등 작은 차이가 있다.

□ 올바른 사용방법



○ 사용시 주의사항

- * 젖은 손이나 물에 젖은 상태로 사용하면 안된다.(감전의 원인이 됨)
- * 직사광선이나 열기구 또는 습기찬 장소에 보관하면 안된다.
- * 전기가 통하는 상태로 쿠션이나 종이 등 타기 쉬운 물건 주위에 두지 말아야한다.
- * 제품을 벤젠, 신나, 페인트, 스프레이 등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 * 직접 제품을 수리하거나 분해 개조해서는 안된다.
- * 사용 직후 또는 가열되었을 경우 발열판을 만지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
- * 스위치를 켜 상태에서 제품을 장시간 방치하거나 가열된 발열판 위에 이물질(예: 머리카락)을 올려놓을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 화학제품(중성세제)으로 제품을 청소하면 안된다.
- *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한다.(코드를 잡고 무리하게 뽑으면 단선의 위험이 있음)
- * 제품 본체에 물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 사용 도중 이상 발생시 확인 사항

이상 증상	확인 사항	조치 사항
사용 도중 정지되었을 때	퓨즈가 단전되거나 코드가 단선되어 있지 않은가?	코드 접속을 확인한다.
온풍이 이상하게 뜨거울 때	흡입구를 모발 등으로 막고 있지 않은가?	흡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를 제거한다.
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	코드가 단선되어 있지 않은가?	코드를 확인한다.
전원 코드 플러그가 뜨거울 때	콘센트 용량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정격용량의 콘센트를 사용한다.



1982.9.21 www.JOAS-ELEC.com



○ 보관 방법

- *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아야한다.
- * 유아 또는 어린이는 만지거나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 * 코드나 플러그에 손상이 있을 경우,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거나 떨어뜨려 제품 손상이 있는 경우,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즉시 서비스센터에 맡겨 검사 및 수리를 받아야 한다.
- * 욕실에서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스위치를 "OFF"에 놓았다 하더라도 물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한다.
- * 코드를 자르거나 손상시키거나 변형시켜서는 안된다.
- * 제품 본체에 코드를 감아놓으면 안된다.
- * 제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플러그를 아무 구멍이나 다른 장비에 꽂아서 사용해서

는 안된다.

- * 제품은 규격에 맞는 연결 콘센트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 드라이어를 사용할 경우 같은 콘센트에 다른 절연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면 용량이 초과되어 단선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된다.
- * 제품을 오랜기간(또는 장시간) 사용하여 제품 코드선이나 몸체의 과열 등 전반적으로 약간의 변형이 발생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A/S를 받아야 한다.



○ 기타 유의 사항

- * 드라이어의 수명은 소비자가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 및 보관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헤어 디자이너의 멋을 창출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시 안전을 확보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헤어 드라이어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용자가 올바른 사용 방법을 모르고 사용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원하는 헤어 스타일의 창출이 불가하여 소비자와 제조업체와의 신뢰도 없애고 사용시 불안감은 해소 할 수 없을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라는 고사성어 처럼 이번 기회에 모든 소비자가 헤어드라이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바로 알고 자신만의 헤어 스타일을 창조하여 자신 있고 활기찬 생활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를 기대해 본다.